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1호 [루게 제24399호] 주체102(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 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의 영원한 태양입니다

은 나라에 일심단결의 기상과 대변영의 열풍이 차넘치고있는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추모하고있다. 천만군민의 불타는 심장인 아버지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는 마음들이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끌려가 달려가고 있다.

조국의 강성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불태워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서거하신 때로부터 두해가 흘렀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 강렬해지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총성의 마음이며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켜가려는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이다.

우리의 김정일동지는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시며 조선의 강한 힘이고 인민의 영원한 태양입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가 한결 같이 우리르는데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고 혁명해운 크나큰 민족적영광을 가슴깊이 절감하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갈 총성의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평생은 아버지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드림없이 계승하여 우리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선군태양의 령도로 빛나고있다. 수령의 사상과 존함으로 빛나는 혁명의 지도적지침과 강력한 정치적무기도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마련된것이고 선군시대 우리 혁명의 백승의 령도와 전통도 장군님의 령도밑에 이룩된것이며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찬란한 미래도 아버지장군님께서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태양의 빛발, 생명선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신 걸출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한평생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 있었다. 아버지장군님의 혁명사상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정신적무기였고 한생의 좌우명은 인민위천이였으며 장군님의 불멸불휴의 강행군길은 인민행렬차로 이어진 승고한 사랑의 길이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의 근본원칙이였고 투쟁목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우리 인민의 영원한 승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신 절세위인의 한생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사명은 우리 인민을 승리로 이끌어 아버지수령님의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우리 인민에게 고귀한 사상정신적양식을 안겨주시였으며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선군혁명의 전략적로선들을 제시하시였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인민대중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시며 승리와 변영의 굳건한 토대를 다져주시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우리 인민이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백전백승을 떨쳐나갈수 있는 평평한 앞길을 열어주시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업적으로 된다. 아버지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나아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우리 혁명의 진두에 불멸의 태양기가 휘날리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가 위대하기에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선군의 총대로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신 천출명장의 한평생이다. 선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



혁명실천이였으며 장군님의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신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강고한 의지와 희생적인 헌신으로 준엄한 선군혁명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일고계시던 단발숱과 병사들을 찾아 남고 오르신 철령과 오성산, 사나운 파도를 헤치며 찾으신 초도를 비롯한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은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의 증적자로서 언제나 우리 인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어 주고 있다.

우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라나고 사회주의조선이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전변되어 우리 인민이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수호를 위한 만민기틀을 마련하신 위대한 선군태양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경의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인민의 아버지의 한생이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승고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이룩할수 없는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세계에는 우리 인민이 강성국가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될 찬란한 미래가 있었으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광이 온 누리에 펼쳐지는 휘황한 미래가 있었다. 조국을 떠맡는 부리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의 자욱은 심장의 격동이 없이는 돌이켜볼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승결, 애국의 실천에 의하여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 강성국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가

펼쳐지고 온 나라에 새로운 기적과 혁신의 열풍이 일어나게 되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과 최첨단들과의 경이적인 사면,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건설을 비롯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눈부신 성과들은 김정일애국주의의 승고한 서사가 수놓아져있다. 펼쳐진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아버지장군님의 인민을 위한 한생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오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기 위한 혁명적대진군의 진두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수령영생위임실현의 새 역사를 수놓으시며 창조와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어나가시는 걸출한 령도자이다. 위대한 태양의 령도를 줄기차게

이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 당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만민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 조국이 약동하는 젊음으로 거세차게 비약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열어주시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말아야 하며 백두의 선군명장 김정일원수님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세상 끝까지 총직하게 받들어어나가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태양 김정일장군님의 유훈관철이 있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가 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대원수님들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이며 승리의 상징인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며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상

을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철저히 무장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식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백두의 혈통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피줄기이다. 우리는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백두의 혈통을 순결하게 계승해나가며 대를 이어 뜻이 이어나가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행군길을 뜻없이 이어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 혁명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력사의 온갖 도전과 원수들의 발악적인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오늘의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고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독속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김정일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굳건히 받들어어나가야 한다. 누구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위업을 뜻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평범한 날에나 존엄한 날에나 원수님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참된 전우, 동지가 되어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처럼 전당과 온 사회에 자기 령도자를 사상과 신념으로 따르고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드는 혁명적기풍이 짙 차넘쳐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우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려는 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의지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승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려고 불철주야의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공격속도에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혁명적군인본래, 일당백의 군인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오늘의 총진군에 계속 큰 박차를 가해야 한다.

건설에서 오늘의 최전성기를 대변영기로 더욱 고조시켜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력사를 창조하고 건설부문에서의 혁신의 봉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 따라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세계를 주름잡으며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안아온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오늘의 대건설전투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새로운 대비약속도 창조와 원동력이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필생의 념원인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리고있으며 우리 조국은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존엄떨칠것이다.

모두 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자.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김정은



금강산 비로봉의 장쾌한 해돋이를 부감하시며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락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5(2006)년 9월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 참가자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9월



무산 지구 전투 승리 기념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3월



고대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0(2001)년 5월



청년들에게 혁명의 해불봉을 넘겨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4(1995)년 10월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한 성진제강련합기업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8(2009)년 12월



남흥 청년 화학련합기업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6월



룡천군 장산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6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월



김일성종합대학 로교수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4월



평양 남새 과학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3월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맹세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단결과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결사옹위할것을 다짐하는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맹세모임이 16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온 나라 천만군민의 백두같은 총정에 의하여 혁명의 대진당으로 훌륭히 꾸러진 주체의 최고성지는 민족최대의 주모의 날을 앞두고 승업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와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천지통과가 돌아쳐도 오직 백두의 혈통을 뜻곳이 이어나갈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철석의 의지가 차넘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금수산태양궁전 정면에 모셔져있었다.

광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옹위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일편단심 김정은원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선군혁명동지가 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인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명예위병대가 주석단렬에 정렬해있었다.

기발양대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가 나뉘고있었다. 최룡해동지, 리영길동지, 장성남동지, 인민무력부 일군들, 각급 부대, 군사학교일군들, 조선인민군장병들, 혁명학원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맹세모임에 앞서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의 노래주악이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속에 조선인민군군악대의 입장례식이 있었다.

백두산혁명군군의 기상을 시위하는 배수를 보며 참가자들은 선군령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그 어떤 강



전도 단애에 때려부실수 있는 무적의 최정예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강위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다져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천만군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우리 혁명이 줄기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정치군사적지반을 다져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대소환과 삼복철강정신들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까지 인민을 위하여 한몸을 장그리 불태우시며 눈물겨운 헌신의 로고를 바치시

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수령복, 최고사령관복을 안겨주시고 조국과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 주신 위대한 김정은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민군대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결사옹위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동지의 군대이며 우리의 총대는 경애하는 정치군사적지반을 다져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대소환과 삼복철강정신들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까지 인민을 위하여 한몸을 장그리 불태우시며 눈물겨운 헌신의 로고를 바치시

나아가는 혁명적명령체계와 군공을 더욱 철저히 세우고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주신 위대한 김정은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민군대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결사옹위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동지의 군대이며 우리의 총대는 경애하는 정치군사적지반을 다져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대소환과 삼복철강정신들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까지 인민을 위하여 한몸을 장그리 불태우시며 눈물겨운 헌신의 로고를 바치시

있는 싸움군, 백발백중의 명사수, 명포수, 야간전의 능수로 든든히 준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도원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군의 모든 중대를 수령결사옹위의 최정예전투대로, 군인들의 정은 고향하고 또 단결하자!》는 구호를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결사옹위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는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으로만 충구를 내대고 끝마로

찾아함으로써 사회주의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였다.

세상천지가 열백번 변한다 해도 후호의 혼들림없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총대로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것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제국주의반동들이 아무리 준동하여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선군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갈것이다.

전체 모임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는 누구도 모른다신념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천만이 총폭탄되어 김일성결사옹위로 시작되고 김정일결사옹위로 이어온 우리 혁명무력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김정은결사옹위로 더욱 빛내어나갈것을 엄숙히 맹세하였다.

위대한 김정은대원수님의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나갈 철의 의지를 담아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단결과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 승리의 기치인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위하여 한복숨바쳐 싸우자!》라는 구호를 우렁차게 웨치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단결과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나아가갈 인민군장병들의 역적불변의 신념의 메이리가 태양성지의 하늘가에 울려 퍼졌다.

이러 광장에서는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 혁명학원학생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날리며 보무당당히 행진해 가는 데오마더에 대원수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일편단심 충정을 다하려는 백두산혁명군군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쳤다.

모임은 《김정은장군군 복습으로 사수하라!》 노래주악과 합창으로 끝났다.

조선인민군장병들의 맹세모임은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 다진 맹세대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우리 혁명무력의 역전 기상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전문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경의를 드립니다. 나는 김정은령도자각하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그이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을 돌이켜보면서 각하게 이 전문을 드립니다. 그이께서는 한생을 다 바치시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화를 위한 혁명로선을 고수하신것으로 하여 영원한 수령으로 칭송받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수리아인민은 김정은령도자각하의 서거일을 각하와 그리고 친선적인 조선인민과 함께 맞이하면서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 두 인민들사이의 굳건한 친선관계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각하께서 우리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때에 우리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해주고계시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3년 12월 15일 디마스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전문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각하

경의를 드립니다. 나는 김정은령도자각하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그이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을 돌이켜보면서 각하게 이 전문을 드립니다. 그이께서는 한생을 다 바치시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화를 위한 혁명로선을 고수하신것으로 하여 영원한 수령으로 칭송받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수리아인민은 김정은령도자각하의 서거일을 각하와 그리고 친선적인 조선인민과 함께 맞이하면서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 두 인민들사이의 굳건한 친선관계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각하께서 우리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때에 우리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해주고계시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3년 12월 15일 디마스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일본의 단체들과 재중항일혁명렬사가족,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2돐에 즈음하여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문화, 학술, 시인교류를 촉진하는 일조우호교포포데, 일조우호추진교포포부인회, 미야기현일조우호친선협회와 재중항일혁명렬사 김철가족,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심동로가 꽃바구니들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주 경제 및 무역차사단,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월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유엔식량 및 농업

기구, 유엔개발계획,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대표부 성원들과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용화동지의 가족일행, 중국항일혁명투쟁연구자본인 주보중의 딸 주위가족일행, 체세영가족,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김순옥가족, 해외연고자 손원태가족을 비롯한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16일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며 만민의 열렬한 칭송을 받으시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흥모의 마음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당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김정일장군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합니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희세의 위인

외국인들이 열렬히 칭송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정치실력, 고매한 품모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경모심은 외국인들속에서 뜨겁게 분출되었다.

폴스카조선협회 중앙위원회 제1부위원장 야체호 뵈네베르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은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까지 인민을 위한 헌신적의 길을 걸어가셨다.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만연토대를 마련해주시고 진보적인류가 나아가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분도 그이이다.

세계의 수많은 각계층 인사들은 김정은동지를 절세의 애국자, 만민의 아버이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앞에 쌓으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나이지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투는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암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선군조선의 기상을 힘차게 펼쳐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어 진보적인류에게 고무적일 수 있게 하였다.

은 세계가 그리며 따르는 그이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신다.

로세야 이고리 모이세예브명칭 국립아카데미야민속무용단 지배인 엘레나 셰르바코바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영원히 잊을수 없단다. 무용단 전체 성원들은 그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다. 조선인민이 그이의 유훈을 받들고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찾아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는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서사시

그리움의 강산에 흰눈이 내린다

문용철, 리창식

날이 흘러 달이 흘러
또다시 찾아온 12월
사람도 산천도
어버이를 그리는 마음으로
가슴메이는 12월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그리움
그 무엇으로도 씻을길 없는 이
아름
아, 정녕 어버이를 잃은 이 땅에도
해가 뜨고 별이 쏘아 세월은 흘렀단
말인가

단 하루도 단 한시도
우리의 심장속에 그리 계시지 않았
다면
저 푸른 하늘도 이 땅도
우리자신도 없으리니

어제도 우리와 함께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어버이의 노래를 부르고부르노라

× ×

눈이 내린다
흰눈이 내린다
우리 장군님의 정과 사랑
뿌리깊이 스며있는 이 강산을
포근히 덮으며 덮으며

이 나라 사람들
말없이 모자를 벗으며 맞는 이
흰눈
내인들도 아이들도
소중히 두손에 받아보는
12월의 흰눈아

너는 피눈물의 그날
가슴을 어이는 슬픔이였지
하늘이 뿌리는 눈물이였지
눈발속에 오시어 눈발속에 가시는
어버이를 바라는 추모의 흰꽃이
였지

하늘도 그 하늘
내리는 눈도 그 눈이건만
우리 장군님 환하게 웃으시는
이 강산에선
유정히도 따스한 눈송이

하냥 맞고만싶은 이 흰눈
하냥 걸고만싶은 이 거리
우리 장군님의 리상과 녀원이
쫓쳐림 꽃피고 펼쳐지는 이 땅

뜨거운 눈물속에 안아보노라
창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육류교를 건너 이 마음 들어서는
문수물놀이장이며 육류아동병원
사랑의 부논이 내리는 공원과
유원지들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 설달이면
정월의 첫눈을 맞으시며
민길 떠나셨던 우리 장군님
그리운 평양으로 돌아오시던 그날
처럼

아, 이제라도
금지 이제라도
민 전선길의 흰눈을
차창가에 없으시고
이 거리에 조용히 들어서실듯

들어서서여
그새 우리 평양이 몰라보게 달라졌
다고
저 새 거리의 주인들이 나를 기다렸
겠는데
어서 돌아보자고
살림집현판으로 환히 웃으시며 들어
서실듯

그리 읊구나
새살림을 쉰 인민의 집을 찾으실
때면
문손잡이를 잡으시고
내 집주정하러 왔소 하고
주인을 부르시던
어버이의 청정한 그 음성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이 땅우에 일떠서고 솟아난
저 무수한 행복의 창가들에서
어버이의 기쁨넘친 그 음성
다시 울려울듯만싶은 이 거리

젖어든 눈길 들어 다시 바라보
노라
정녕 이 거리가
억강이 무너져내리는 비애의 바다
속에
장군님을 바래워드렸던
그 눈물의 거리란 말인가

내 삼가 걸을 읊기는 이 길이
장군님을 목매어 부르며
어버이 가시는 그 길우에
한걸두걸 눈물의 솟음주단을 퍼드
렸던

그 영결의 길이란 말인가
하염없는 눈발속에 어려오누나
자신의 집과 가정을 떠나
은 나라 조국땅을 집삼아
한생을 하루같이 걸어오신
장군님의 한평생길이

정일봉기순에서 금수산기슭까지
걸고걸으신 길들은 그 얼마
한생에 넘고 헤치신
시련의 고개와 언덕들은 또 얼마...

이 나라 이 땅이 넓어
그리고 먼길을 걸으셔야 했던가
사랑을 주고 정을 주며
돌보셔야 할 인민이 천만이어서
그리고 불같이 사셔야 했던가

이 세상 천만고생은
홀로 다 겪으시고
이 세상 천만복은 인민에게 다
주시며
그것을 제일 큰 기쁨으로 락으로
여기시던
우리 어버이

그 고생이 사무쳐와
이 나라 인민이 흘리는 피눈물은
그처럼 진했어라
그 눈물은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며
은 강토를 적시었어라

슬픔의 눈보라속에
저 하늘의 별들도 빛을 잃고 떨어진
그 12월의 하늘밑으로
내 다시 들어서나니

어려오누나
피눈물의 낮과 밤이 흘러
어느덧 12월은 저물어가는데
더더욱 사무치는 장군님 생각을
안고
원수님 달리시던 그 전선길이

장군님 야전복자락에 숨배인
그 다막솔향기조차 그리운 길
그이 쉬어넘으시던 평길에 타오르던
그 한결의 모닥불조차
목메이게 그리운 길

그이 이리신 곳은
장군님의 체취가 어려웠는
어느 한 야전숙소
금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우렁 우렁한 음성으로 반겨맞아
주실듯

허나 그이알엔
무거운 고요가 깃든 방
낮익은 야전복이 늘 걸려있던
웃겉이며
집무탁의 탁상등을 더듬는
원수님 눈가에 맺히는 뜨거운것
이여

-동무들 울지들 마오
여기 오면 장군님을 꼭 뵈울것
같아
이렇게 달려왔는데
여기에도 장군님은 안 계시누만

억한 슬픔을 누르시며
그이 뜨거운 눈물속에 더듬으시는
그 빈방은
삶의 어버이를 잃은
이 나라 인민의 텅 빈 가슴이었던가
인류의 대성인을 잃고
어둠속에 빛을 잃은 우주였던가

장군님의 야전생애가 비껴있는
낮익은 전선산밭들을 바라보시는
그이
장군님 자유이 어려웠는 그 하얀
명길들을
안아보고 더듬어보시는 그 마음

첩첩 겹쳐드는 시련속에
피눈물에 젖고 눈보라에 물린 이
강토에
사랑으로 타놓는 자신의 심장을 불
태워
열을 주고 생의 박동을 주며
걸고걸으신 그 길

걸으셨어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품에는 사랑하는 인민을 안고
이 나라의 하늘을 억척같이 떠받드
시며
폭풍이 휘몰아치고 불구름이 밀려
와도
오직 곧바로 곧바로만

장군님 물려주신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안고
가리랴 이 길로
장군님 한평생 걸고걸으신
백승의 길, 선군의 이 길로

원수님 마음속엔 어려웠어라
장군님의 야전복자락에 안겨

그 품에서 생을 받아안은 이 나라
인민이
그처럼 그리운 장군님 모습으로

오, 어려웠어라
장군님의 거룩한 숨결로
장군님의 뜨거운 심혈로
자라고 강대해진 이 조선이
영원한 영원한 장군님 영상으로

백두명장의 그 미소를 안고
은 행성을 거연히 굽어보며 빛발
치는
백두산대국의 이 존엄
가없는 우주에 내뻗친
선군조선의 억세인 힘!

천만의 가슴가슴에
넋을 주고 생을 주고 힘을 주던
위대한 그 심장은
혼연일체의 대하속에
일심단결의 대오속에
더 높이 고동치고있나니

자신의 위대한 한생으로
이 나라 이 땅우에
반만년강국의 꿈을 펼치신
거룩한 그이의 한평생을
인민은 선군의 력사라 부른다

자신의 넋과 숨결로
역만년 태양의 세월을 이어놓으신
위대한 그이의 생애를
인민은 영생이라 부른다

눈보라 날리는 빨치산전장에
새기신
생의 첫 자욱처럼
한생의 마지막자욱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위한 최전
선에 남기신
민족의 영웅, 절세의 애국자!

사람들이여
우리 다 알았던가
이 땅에 장군님의 동상을 세우지
못한 아픔에
너 가슴을 치며 울던 피눈물의
그날
우리 장군님을 드리지 못한
마지막영웅메달이 있은줄을

준엄했던 시련의 세월
사생결단의 피어린 선군길을 헤쳐
민족을 살리고 조국의 운명을 지켜
주신
불세출의 영웅께
인민이 것처럼 드리고싶었던
금별메달

허나 빛나는 금별들을
사랑하는 인민의 가슴에 다 안겨
주시고
그이께선 우리 장군님이라는
인민의 그 부름만을
한생의 가장 제부로 영광으로
간직하고 가시었으니

아, 이 나라 천만운명을 불같이
꺼안으시고
불바람 논비바람 다 막아주시며
언제 한번 마물새 없었던
그 야전부우에 끝내 달아드리지
못한
어버이의 영웅메달이여

피눈물의 그 12월
사연많은 영웅메달을
어버이께 삼가 드릴 때
가슴을 치며 울었어라
그이품에 안겨 자란 이 나라 영웅
장병들이
한날한시에 영웅메달을 받아안
았던
비날론도시와 대개도의 영웅들이

장군님의 영웅메달은 빛나고
있어라
그이 한생으로 받아들여온
백두산대국의 위용우에
절세의 영웅 그이를 닮은
이 나라 영웅인민의 모습속에
태워

고요한 밤이면
저 하늘에 뜨고 솟는 별들이
그이를 이야기한다
따스한 봄이면
그이의 정을 안고 움트고 꽃피던
파원의 사과꽃바다가 그이를 노래
한다

전선길의 어느 봄날
울창한 수림속 어메산가
유정히도 울려오는 삐죽새소리에
마음을 얹고 서신 우리 장군님

- 삐죽새가 우는구만
고난의 행군이후에는
처음 듣는 삐죽새소리요

엄혹한 시련의 눈보라를 헤쳐
이 땅에 승리의 봄을 안아오신
장군님께 드리는 산천의 노래편가

그이의 가슴을 유정히도 흔드는
삐죽새소리 삐죽새소리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산천에 우짖는 못새들조차
우리 장군님 품안아 정을 준
사랑하는 이 강산

날아와다오 삐죽새여
우리 장군님을 못 잊어
간절한 그리움에 불라는
내 마음속에 날아와
내 진정의 노래를 쏴아다오 불러
다오

자욱마다
장군님 발자욱소리 울려오고
걸음마다
장군님 추억으로 가슴짓는 길
이 땅을 피줄기처럼 휘감으며
끝없이 뻗어간 길이어

걸고걸는 그 길우엔
사랑하는 병사들이 있었고
기다리는 인민이 있었다
가고가는 그 길엔
석수호르는 막장이 있었고
이삭들이 물결치는 발머리가
있었다

새벽까치소리만 들어도
울렁이는 마음으로 초소길을 쓸던
병사들
한밤중에 울리는 기적소리만
들어도
장군님을 기다려 잠 못 들던
이 나라 인민이거니

높은 령 굽이굽이
그이의 자욱을 따라선 이 마음
젖어드누나
우리 장군님 생애의 마지막나날
자강땅을 찾으셨던
그 눈물겨운 이야기

바쁘신 현지지도일정을 마치시고
야전별차에 오르신 장군님
고향처럼 정든 자강땅을
떠나가 아쉬우신듯
낮익은 산천을 바라보시기를 그
몇번

그처럼 준엄했던 고난의 나날
눈보라치는 구룡령을 넘던
그 밤을 그려보시는가
자신과 뜻과 정을 함께 나눈
자강땅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
는가

- 이번 길에
구룡령이가를 다시 만나보려고
했는데
일이 바빠 그냥 가니
동무들이 찾아가 이 선물과 함께
내 인사를 꼭 전하시오

그 사연을 전해들으며
구룡령이가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
는데
사랑하는 자강땅인민들에게 보내
시는
어버이의 작별의 인사편가
멀리서 울려오는 기적소리 기적소리

명길에 달려나와
장군님을 목매어 부르는
불타는 여들도 있었건만
장군님 생각 사무치는 원수님
마음속에
언제 한번 12월의 흰눈이 맺은적
있었던가

어이 알았으랴
산천의 단풍도 그리움에 불라던
그 10월의 기적소리가
자강땅에 남기시는 마지막기적
소리가 될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평생 인민들속에
자신의 피와 살을 주시듯
열과 정을 강리코 다 부어주신
인민의 어버이

그렇게 울리셨어라
12월 그 피눈물의 기적소리도
사랑하는 인민을 찾아가시는
그 새벽길에서

우리의 어버이는 그렇게 남기셨어라
인생의 마지막마애리도
한평생 품에서 못 놓으신
인민, 인민이란 그 부름만을 꼭
안으시고

그처럼 그리운 장군님을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 상에서
뵈옵고
따사로운 그 품에서
장군님의 사랑을 다시 받아안으며
살아온 두해세월이여
추억깊은 그 갈피엔 새겨져있구나

뜻깊은 10월을 맞으며
원수님을 모시고 공원이 진행되던
그날
만사람의 가슴을 적시던 눈물겨운
화폭이

환호하는 격정의 파도속에
낮익은 구룡령할머니며
희천과 강계의 녀성지배인들을
선참 알아보신 우리 원수님

손저어 불러주시는 그이품에
한달음에 달려가
웃자락에 철부지마냥 매달려
한껏 쏘던 그리움의 눈물이여

아, 그 눈물은
그리운 장군님 정에 애끓던
심장의 눈물이었나니
자강땅너인들만이 아닌
은 나라 인민이 이렇게 다시 안겼
어라
못 견디게 뵈고싶던 우리 장군님
품에

이 나라 방방곡곡
찾으시는 곳마다
만나주신 사람마다
꼭 다시 오마 남기신
장군님의 그 약속을 안으시고
가고가신 원수님의 길이어

오늘도 야전별차는 달리고있어라
장군님과 혈연의 정을 맺은
이 나라 수천수만의 구룡령이가들을
찾아
그리운 인민들을 찾아
사랑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그이의 사랑이 하늘이라면
그 하늘에선
인민의 삶이 별처럼 빛나고있어라
그이의 온정 가없는 바다라면
가장 깊고깊은 그곳에
인민의 모습이
진주보석처럼 자리잡았어라

눈이 내린다
모든것이 장군님 뜻대로
모든것이 장군님 녀념대로
꽃피고 번영하는 이 땅에
그리움의 흰눈이 내린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 장군님과 함께 맞던 눈
즐겁고 기쁨 때에도
우리 장군님과 함께 맞던 눈

원수님 손길아래 행복꽃핀 이
땅에
오늘도 장군님과 함께 맞고싶어
이 나라의 아들딸들
어버이품을 찾아 들어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의 밝은 트랙에

내리고 내리여라
장군님 세월을 무궁토록 이으시며
원수님 걸고걸으신 그 자욱들우에
날마다 영생의 진리를 새기며
번겨온
그리움의 일력장들우에

낮을 이어 밤을 이어
그이 가고가신 머나먼 길에
꽃피는 봄도 있고
불타는 여름도 있었건만
장군님 생각 사무치는 원수님
마음속에
언제 한번 12월의 흰눈이 맺은적
있었던가

언제나 전선길에서
내 조국의 첫새벽을
남편처럼 맞으시던 장군님처럼
내 나라의 새벽문을 여시며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그이 헤쳐오신 생년길 생년길

기쁜 일이 생기면
그 기쁨 함께 나누시며
힘겨울 때면
자애론 영상 우러러 새힘을 얻으
시며
사계절의 날과 달
장군님과 함께 계신 우리 원수님!

장군님 물려주신 조국을 지켜
사랑하는 인민을 지켜
그이 넘고 헤치신
철령과 오성산의 험한 명길이여
무도와 장제도의 날바다길이여

어느 초소 어느 일터를 찾으시여도
그이의 마음속엔
앞서 걸으시는 장군님의 발걸음소리
바람결에 나뉘기던
야전복자락소리가 끝없이 울려
왔어라

원수님의 그 총성의 세계가
장군님 영생하시는
우리의 세월을 이루었다

장군님의 태양의 미소 밝게 빛나는
우리의 하늘을 받들었다

사람들이여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을
한품에 안아 행복의 결정
사랑의 금방석우에 앉혀주신 그
사랑

장군님 한평생 사랑하신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을
한품에 안아 행복의 결정
사랑의 금방석우에 앉혀주신 그
사랑

달려와 안기는 아들들을 한품에
안아
그들의 두뺨으로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며
그 작은 손들을 꼭 잡아주시는
원수님의 따스한 손길이여

그 손길에서
피눈물의 12월
장군님 가시는 길에
내리고내리는 흰눈을 쏴어모으며
복홍아울던 이 나라 아이들
그 언손이 따스히 녹지 않았더나

이 땅의 두해세월은 이렇게 흘렀
어라
장군님 그리움에 사무쳐 끓는
이 나라 인민의 천만가슴에
장군님 사랑과 정을 부어주며
오신
원수님의 그 마음에 받들려

사랑의 그 자욱을 삼가 더듬는
이 마음에 실려오는 물결소리 물결
소리
이른새벽에도 깊은 한밤에도
찾고 또 찾으시어 세워주신
인민사랑의 물결진 문수물놀이장

우리 장군님
그토록 인민에게 안겨주고싶어하신
물놀이장의 기쁨넘친 파도소리를
늘 마음속에 안고계신 원수님

완공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인민의 웃음이 넘치는
황홀한 물놀이장을 보시면
누구보다 기뻐하실 장군님 생각에
원수님 마음 얼마나 뜨거우셨던가

얼마나 좋으랴
장군님을 모시고
완공의 날을 맞을수 있다면
준공의 테프를 끊으시며
해빛같이 웃으실 장군님을 다시
뵈울수 있다면

사랑하는 인민에게
한가지 기쁨을 더해주시길 때면
만사함을 잊으시고
환히 웃으시던 장군님
행복한 인민의 모습속에
영원히 계시는 장군님 영상

- 나는 문수물놀이장의 준공가위를
장군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인민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아, 원수님의 뜨거운
그 마음이 실린 준공의 가위를
두손이 아닌 불같은 눈물이 끓는
심장으로
부어잡던 인민이여

정녕
장군님을 모셔야 할
기쁨의 이 자리에
우리가 섰단 말인가
장군님께서 끊으셔야 할 준공의
테프를
우리가 이렇게 끊는단 말인가

그리움에 눈물젖고
격정에 눈물젖는
그 마음들엔 울려왔어라
사랑하는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뜨거운 그 음성이

- 나는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인민이
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옵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받들 생각뿐입니다

원수님 안겨주신 그 금방석위로
행복과 문명의 대로앞에 드리운
붉은 자락을 풀을 때
인민은 뵈왔어라
천만해살 눈부신 물결푸른 백사장에
서시여
우리 행복을 축복하시는 장군님의
그 영상을

사는
무궁한 세월이 흐르는것을

변모되고변모된 조국땅
마치 수십년의 세월이 이 땅에
흐른듯
노을속을 달리던 야전별차의 차창
가에서
장군님 안아보시던 그 미소가
눈부시게 펼쳐지는 이 강산

슬픔의 흰눈이 쏟아져내리던
이 나라 하늘가에
승리의 불보라가 장엄히 터져
오르고
비에의 눈물이 흐르던 이 땅엔
위대한 영생의 세기가 굽이치나니

가장 크나큰 슬픔속에서
가장 위대한 력사를 창조한 2년
가장 처절한 비애의 바다우에서
강대한 이 조신을 우뚝 안아올린
김정은장군의 2년

몰어보라
눈물도 불이 될수 있는가를
복홍아울던 이 나라 아이들
가없는 우주로 솟구쳐오른
그 위성의 정재한 불꽃기에

또 몰어보라
눈물도 강철이 될수 있는가를
7월의 광장에 태양기를 휘날리며
굽이치던 강철의 도도한 흐름에
슬픔속에서 천백배로 강해진
일심단결의 대오에

영원한 태양으로 받든분
영원한 어버이로 모신분
생활과 투쟁의 나날속에
우리는 심장속에
장군님을 모시고 사노라

때로 난관에 부딪힐 때면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폭풍도 웃으며 뽕고갈 힘과 용기를
얻으며
승리와 성공의 순간을 맞이할 때면
그이께 자랑찬 기쁨의 보고를
드리며

우리는 그이를 따라배우며 사노라
그이의 신념과 의지
그이의 사랑과 열정을
우리자신의 피와 숨결로 지니기
위하여
우리 또한 그이처럼
불같은 애국의 한생을 살기 위하여

장군님 숨겨려 이 땅의 모든것
에서
장군님의 그 미소 햇빛으로 흐르는
이 나라의 산과 강 가없는 저 하늘
에서
끝없이 울려오누나
원수님의 위대한 심장의 메아리
조국찬가의 노래소리가

장군님 품에 자란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
장군님 손길잡고 시련의 먼길을
걸어온
그이의 전사, 제자들이 목매어 부르
노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태여준
정은 교합집트락 조국여여라
...

부르고부르노라
우리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영광의 새 아침을 맞이한
이 나라 천만군민이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뉘
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

이루어지리라
우리 원수님 품에
인민이 바라고 소원한 그 모든것
장군님 안고 사신 그 모든 녀원
이 땅우에 백화로 만발하리라
행복의 무지개로 비끼리라

어버이장군님은 계시여라
위대한 김정은원수님 따라 나가는
천만의 대오앞에
찬란한 아침노을이 불타는
강성대국승리의 봄언덕우에

오, 눈이 내린다
우리 장군님 태양으로 밝게 웃으
시는
이 나라 이 강산에
추억의 흰눈이 내린다
그리움의 흰눈이 내린다

